

제언

‘대한산업보건협회 50년사’를 편찬하며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김 해 준



“어느 기관이나 역사는 그 기관의 보배입니다.
만일 그 기관에 역사가 없다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2년 5월 어느 날, 성모병원에서 투병 중이시던 故조규상 명예회장님께서
‘대한산업보건협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주셨던 서신의 한
구절입니다.

편찬위원회는 50년사의 발간이 지나온 반세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반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우리 협회가 우리나라 산업보건 발전에
미친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보다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미 30년사와 40년사를 발간한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이 50년사를
편찬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료를 집대성한 50년사는 앞으로
우리 협회,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보건사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주요 기록의 관리가 소홀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정관의 제·개정에 대한 자료 관리였습니다. 1964년 7월 6일 협회 정관을 제정한 이후 2012년 1월 13일자 현행 정관까지 23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최초의 정관은 1983년 3월 28일자 8번째 개정 정관이었습니다. 그 이전 창설 당시의 최초 정관과 그 이후 7번의 개정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본부가 가지고 있는 역사 자료와 지부 및 센터의 자료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협회가 그간 시행한 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등의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실적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의 팀장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파악하여 표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였고, 각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도별로 몇 명 또는 몇 건을 시행하였다는 수치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본 협회를 창설하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협회를 이끌어 오신 분들은 '모든 근로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란 신념을 지니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정관의 목적과 사업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곧 우리 협회의 '고유목적사업'일 것입니다. 협회는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또한 보다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회원과 구성원들이 애써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합니다.

산업보건학술제 개최 및 포상, '산업보건'지 간행, 산업보건관련 세미나 개최, 산업보건관련 학회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새로운 반세기 50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협회의 고유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성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산업보건협회 50년사의 편찬위원장을 맡았던 책임과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문서규정'에서 영구보존문서로 지정된 자료 중 망실된 자료를 더 늦기 전에 채워 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부나 지부 센터의 창고나 주무관청에서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발굴 노력, 그리고 기존의 자료들도

디지털화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체제의 도입도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에 발간된 50년사에 수록된 내용 중,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오류를 수정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약사의 내용이 앞으로 협회와 우리나라 산업보건사를 기술할 때 참고자료로 인용될 것이므로 정확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독자들로부터 수정보완 의견을 접수하고 관리할 창구개설이 필요합니다.

셋째, 앞으로 본부와 각 지부 센터가 매년 정기적으로 정리 보존해야 할 역사적 사료의 목록을 제정하여 시행한다면 향후 10년 또는 20~30년 후에 활용할 정확한 자료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협회의 전산화 기능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산업보건사업의 실적을 관리하고 심층 분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협회가 그간 시행한 고유목적사업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시행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50년사 발간을 통하여, 앞으로 안젠가 이어 발간될 약사가 우리 협회의 회원과 구성원이 읽으면서 자랑스러워 할 약사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가 그의 장서에 소장하기를 원하는 우리나라 산업보건 분야의 역사서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아이템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대한산업보건협회 50년사'의 편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과 직접 참여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